

1. ② 김씨 -> 김 씨로 띄어쓴다. ③ ‘큰일’은 붙여써야하고 ‘틀림없다’도 형용사로 붙여 써야 한다. ④ 몇 일 -> ‘며칠’로 고쳐써야 한다.

정답 ①

2. 주제는 조화의 가치이고, 조건은 대립적 속성의 사물, 유추와 대조, 가치 요소를 암시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이다.

① ‘이’와 ‘혀’는 대립적 속성의 사물로 대조 표현 사용하였고, 아버지, 어머니와 유추적 관계이다. ‘건강하게’라는 점에서 가치요소를 암시하고 있다.

② 유추표현이 없다.

③ 유추표현도 없고, 가치요소도 없다.

④ 유추표현이 없고 가치요소를 암시하지 않았다.

정답 ①

3. ‘걸맞다’는 형용사이므로 관형사형어미 ‘는’을 붙일 수 없다. 따라서 ‘걸맞은’이 맞는 표기다.

정답 ④

4. 신화는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일’이라는 뜻이 있다. 문맥상으로는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일’에 해당한다. ①은 ‘신비스러운 이야기’ ②, ③은 절대적이고 획기적 업적을 비유한다. ④의 신화는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일에 해당한다.

정답 ④

5. 인접단락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ㄹ)의 춘향전 이야기 다음에 (ㄴ)이 와야 한다. ‘소설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를 통해 판단한다. 그러면 답이 ②, ③으로 압축된다. (ㄷ)의 ‘이처럼 부분만 보고 그것도 잘못보고 전체를 판단한다’의 내용은 (ㄴ)의 뒷부분과 연결된다.

정답 ②

6. ‘대표팀은 가열차게 땀방울을 흘리고 있고, 코치진도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경기력에 매진한다.’라는 구절을 보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의미의 走馬加鞭(주마가편)이 정답이다. 절치부심은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인다’는 의미로 여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정답 ①

7. ‘갈바람’은 서풍으로 ‘하늬바람’이라 한다. 셋바람은 동풍으로 동부새, 마파람은 남풍으로 앞바람, 뒤바람은 북풍으로 뒷바람이라고 한다.

정답 ②

8. 밑줄친 부분은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가 악수를 통해 화해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부끄러운 현실의 극복과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②는 이형기의 ‘낙화’이다. 이별의 고통을 인내하여 성숙하는 인간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부정적 상황의 극복을 통한 밝은 미래 획득이라는 공통점을 보여 준다.

정답 ②

9 ① ‘금하다’를 써도 좋다. 일부러 고칠 필요 없다.

정답 ①

10. ④ 정밀지도 제작이라는 국가 과제를 수행했다는 말은 본문에 없다.

①은 2단락 셋째줄 ②는 2단락 마지막 부분 ③은 2단락 둘째줄에 나와 있다.

정답 ④

11. 신문표제문이기 때문에 간접명령문으로 표현해야 한다. ‘~(으)라’와 결합해야 한다. ‘쌍으라’가 바른 표기다. 그러나 ‘임하라’는 부사어를 취하는 것이 바르기 때문에 ‘업무에’를 넣는 것이 더 좋다는 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출제의도는 명령문에 있는 것 같다.

정답 ④

12. ① 갱신, 갱생 ② 살생, 상쇄 ③ 부결, 비색 ④ 개척, 탁본

정답 ①

13. ㄴ첨가 된 후에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원닌뎡]이 바른 발음이다.

정답 ②

14. ③ 見物生心(견물생심), 大同小異(대동소이), 拔本塞源(발본색원), 不偏不黨(불편부당)

정답 ③

15. ①, ②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 앞에서는 ‘ㅅ’을 쓰지 않는다. ‘위층’, ‘뒤편’이 바른표기다. ③ ‘익숙하지’는 안울림소리 ‘ㄱ’뒤에서 ‘하’를 생략한다. ‘익숙지’는 바른표기 ④ ‘생각하건대’도 ‘하’를 생략해서 ‘생각건대’로 표기해야 한다.

정답 ③

16. ① 전주 - Jeonju ③ 후라이팬 -> 프라이팬 ④ 청계천 - Cheonggyecheon

정답 ②

17. ③ 훈몽자회에서는 ㅈ, ㅊ이 뒤로 배치되어 있어 자모 순서가 현대 한글 맞춤법과 약간 다르다.

정답 ③

18. ② 사람은 -> 사람에게는 으로 고치거나 부과하니 -> 부과받게 되니 로 고친다. ③

펴야 한다 -> 마련해야 한다. ④ 심장 구실을 한다 -> 심장과 같다.

정답 ①

19. ‘미립’은 경험으로부터 얻은 묘한 이치, 또는 요령이란 뜻으로 ‘굵은’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정답 ④

20. 유추한 내용이란 본문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한다. 이미지는 상형과 관련이 있다. 우리말의 자음과 모음도 발음기관과 天地人을 상형하였다는 점에서 이미지를 완전히 배제한 문자라 할 수 없다.

정답 ③

#### <총평>

2010년 국가직 문제는 시험 시간을 늘린다는 공지가 나면서부터 예고된 대로 어렵게 출제되었다. 종합적 사고 능력의 측정을 위해 시험시간을 늘렸다는 공지내용과 같이 단순 암기식 문제보다는 원리의 이해 그리고 종합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어 기출문제를 풀고 단순히 문법 암기에만 치중한 학생들은 당황했을 것이다.

출제 문항을 보면 독해가 (5문제-한자성어를 독해로 분류), 어휘 (2문제), 쓰기(2문제), 문법(8문제), 시(1문제), 한자(2문제)가 출제되었다.

문법은 비중이 줄었고, 문제도 단순 암기보다는 원리를 파악해서 해결하는 문제 중심이다. 독해 비중이 늘었고 지문도 짐작했던 것과 같이 길어지고, 사고력 측정 문제가 출제되었다. 어휘 쓰기 4문제도 독해로 분류하면 앞으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문학은 시 한 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아 작년보다 비중이 줄었으나, 감상능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어 어려운 편이었다. 한자는 예년에 비해 무난한 편이었고, 필수한자를 꾸준히 연습했다면 해결할 수 있다.

앞으로 지방직 문제도 이와 유사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다루어 보는 것이 좋겠다.